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적중 분석

■ 적중 사례 모아보기

영역	제재(문항)	상상국어 적중 문항	적중 내용
독서	[1~3]「SQ3R 독서법」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지문 적중, 선지 적중
	[4~9]「조선시대의 노비 문제와 신분제」	『이매진』 3호 2주차 DAY 1 [1~5]	지문 적중
	[10~13]「정보 비대칭 문제와 정부 개입」	『이매진』 1호 2주차 DAY 2 [1~4]	지문 적중
	[14~17]「라플라스 식과 오네소르게 수」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제2차 [14~17]	지문 적중, 선지 적중
		『이매진』 4호 1주차 DAY 3 [1~4]	지문 적중, 선지 적중
문학	[18~21] 나룻배 이야기	『이매진』 4호 4주차 DAY 2 [1~4]	작품 적중, 대목 일치, 선지 적중
	[22~27] 그 나무	『이매진』 2호 3주차 DAY 1 [1~3]	작품 적중, 선지 적중, <보기> 적중
	[32~34] 만전춘별사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작품 적중, 선지 적중
언어	[35~36] 음운+단어 (변이음과 이형태)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3차 [35~36]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9일차 [35~36]	내용 적중
	37번,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표현)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1차 38번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3차 36번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3일차 36번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2일차 37번	선지 적중
	38번, 국어사 (중세 국어의 의문문)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1차 39번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2일차 39번	내용 적중, 선지 적중

독서: 독서론 [1~3] 「SQ3R 독서법」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읽기 전략으로는 SQ3R이 있다.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다섯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훑어보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다음으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글을 읽는다. 읽은 후에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하며 암송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읽은 내용을 재검토한다.

이 전략의 읽기 전 활동인 '훑어보기'와 '질문하기'는 능동적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독자는 대강의 내용을 훑어봄으로써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내용을 찾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질문하기는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는 독자가 책 속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정보를 의식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SQ3R 독서법은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독자가 자연스럽게 의식하도록 만들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독서 방법이다.

SQ3R 독서법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되새기기, 다시 보기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책을 읽기 전에 목차 등을 이용해 핵심 제재를 살펴보고 전체 내용을 미리 짐작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의식한 상태로 책을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질문하기 단계는 핵심 제재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단계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독서를 하면서 해당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며 읽도록 만든다. 자세히 읽기 단계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직전 단계에서 만든 질문이나 책을 읽는 도중에 새로 생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되새기기 단계는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단계이다. 독자는 책에 서술된 것과는 다른, 자신만의 표현으로 직접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인 독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다시 보기 단계는 직접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다시 읽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이전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A] SQ3R 독서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우선 핵심 제재를 바탕으로 미리 질문을 생각해 놓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독자 자신만의 언어로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 독자는 해당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시 읽을 때 직접 내용을 정리하며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지문 적중

독서: 독서론 [1~3] 「SQ3R 독서법」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숙고하기'는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② SQ3R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 전략의 하나이다.
③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 파악과 기억이 중요하다.
④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SQ3R에 포함된다.
⑤ '관점 바꾸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문하기 단계 외에도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② SQ3R 독서법에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③ 독자는 되새기기 단계를 통해 적극적인 독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④ 자세히 읽기 단계에서 독자는 직접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책을 읽으며 내용 안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의식하며 책을 읽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선지 적중

독서: 인문 [4~9] 「조선시대의 노비 문제와 신분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이매진』 3호 2주차 DAY 1 [1~5]

이러한 도덕적 규정으로 인해 조선 사회에는 백정을 배척하면서도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모순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사회 유지를 위해 우육과 가죽은 필수적이기에 누군가는 불결하게 여겨지는 노동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들은 백정의 노동 결과물은 누리면서도, 거주지와 의복 등 일상 전반에서 이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실질적인 천민처럼 대우함으로써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했다. 이 견고한 차별 구조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명목상 신분제가 폐지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1923년 백정들이 실질적인 신분 해방과 평등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전개했을 때 일반 백성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은, 자신들이 누려온 상대적 지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집단적 혐오의 표출이었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10~13] 「정보 비대칭 문제와 정부 개입」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매진』 1호 2주차 DAY 2 [1~4]

정보의 비대칭이란 경제 활동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상황에서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기 쉽다. 기업이 노동자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론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한계 생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한계 생산 가치는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추가적인 수입으로, 노동자의 생산 능력이나 숙련도가 높을수록 그 값이 크다. 노동 시장 전체의 노동자가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진 A형과 낮은 생산 능력을 가진 B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유형이 p와 $(1-p)$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할 때, A와 B의 임금 w_a, w_b는 각각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다. 그런데 기업이 A와 B의 구성 비율과 각 유형의 한계 생산 가치를 알고 있지만 개별 노동자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시장 전체에서의 한계 생산 가치의 평균에 해당하는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때 한계 생산 가치의 평균은 각 유형의 한계 생산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과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들의 합 '$p \times w_a + (1-p) \times w_b$'와 같다. 그러나 이렇게 산출된 임금은 A의 한계 생산 가치와 차이가 커 A가 노동을 제공할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B를 많이 고용하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지문 적중

독서: 과학 [14~17] 「라플라스 식과 잉크젯 프린터」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제2차 [14~17]

인체에서 호흡계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현상인 가스 교환과 관련된 기관들을 일컫는다. 호흡계는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기관인 전도부, 가스 교환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인 호흡부로 나뉜다. 호흡부의 기관인 폐에는 수많은 작은 폐포들이 분포하는데, 이곳에서 혈관과 폐 사이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폐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제1형 폐포 세포와 제2형 폐포 세포로 구성된다. 제1형 폐포 세포에서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며, 제2형 폐포 세포에서는 폐 계면 활성제가 분비된다. 폐 계면 활성제는 폐포가 오그라드는 현상인 허탈을 막아 가스 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는 물질이다. 폐 계면 활성제는 대부분 인지질이며, 단백질로 된 폐 계면 활성제도 일부 존재한다. 폐 계면 활성제 인지질은 직접적으로 폐포의 허탈을 막는 데 관여하며, 폐 계면 활성제 단백질은 폐 계면 활성제 인지질이 폐포에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폐 계면 활성제 단백질에는 SP-A, SP-B, SP-C, SP-D가 있다. 그중 SP-A와 SP-D는 호흡계의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생산되지만, SP-B와 SP-C는 폐에서만 만들어진다.

지문 적중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제2차 [14~17]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폐 계면 활성제를 분비하는 세포는 제1형 폐포 세포이다.
②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인체의 기관은 호흡부에 속한다.
③ 인체의 폐 계면 활성제 중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지질보다 작다.
④ 폐 계면 활성제 인지질은 층 판소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⑤ 폐 계면 활성제는 가스 교환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 폐포가 오그라드는 현상을 방지한다.

선지 적중

독서: 과학 [14~17] 「라플라스 식과 잉크젯 프린터」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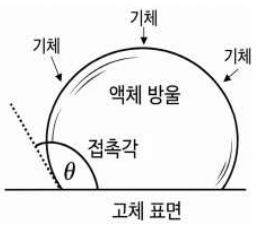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게 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이매진』 4호 1주차 DAY 3 [1~4]

젖음성의 정도는 접촉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촉각은 <그림>의 θ, 즉 액체 방울의 표면과 고체 표면이 만나는 지점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접촉각은 고체, 액체, 기체가 맞닿는 경계에서 작용하는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핵심이 되는 힘인 표면 에너지는 물질이 다른 물질과 맞닿아 새로운 표면을 형성해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표면 장력은 액체가 기체와 맞닿는 표면적을 줄이려는 힘이다. 고체와 기체 사이의 표면 에너지에서 고체와 액체 사이의 표면 에너지를 뺀 값을, 액체와 기체 사이의 표면 장력으로 나눈 비율이 커질수록 접촉각이 작아진다. 이 접촉각이 작을수록 액체 방울이 고체 표면에 넓게 퍼져 젖음성이 크다.



<그림>

젖음성은 '잉크젯 액적 제어 기술'의 인쇄 품질을 좌우한다. 이는 전압을 받으면 형태가 변하는 장치인 압전 소자가 발생시킨 압력으로 노즐 안의 잉크를 밀어내 분사하는 기술인데, 잉크의 젖음성이 크면 고르게 분사되어야 할 잉크의 일부가 노즐 끝부분의 표면을 따라 흘러 인쇄 품질이 하락한다.

(중략)

하지만 잉크의 응집력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수성 코팅이나 미세 돌기 구조를 적용해도 잉크가 노즐 표면을 적시면서 찻주전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응집력이 너무 높으면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응집력이 액체의 표면적을 줄이려는 표면 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응집력과 표면 장력은 물질 고유의 성질이므로 방울의 크기와 무관하다. 가령 상온에서 수은의 표면 장력은 물의 표면 장력의 약 7배이다. 단,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은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잉크젯 액적 제어 기술로 분사되는 잉크 방울의 반지름은 수십 마이크로미터(μm) 수준이므로 기본적으로 내부 압력이 높다. 이때 잉크의 응집력까지 높아지면 내부 압력이 극도로 높아져 압전 소자가 가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지문 적중

독서: 과학 [14~17] 「라플라스 식과 잉크젯 프린터」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매진』 4호 1주차 DAY 3 [1~4]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클수록 액체의 구형이 잘 유지된다.
② 노즐 표면의 소수성 코팅은 잉크의 응집력을 감소시킨다.
③ 미세 돌기 사이에 갇힌 공기층은 노즐 표면보다 부착력이 크다.
④ 액체 방울이 작아지면 표면 장력과 내부 압력이 모두 감소한다.
⑤ 압전 소자는 잉크 방울 내부의 압력을 외부의 압력보다 낮게 만든다.

선지 적중

문학: 현대 소설 [18~21] 「나룻배 이야기」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A]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옳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닻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허끝으로 씩 훑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뀌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해쌓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이매진』 4호 4주차 DAY 2 [1~4]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redacted]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

"옳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좋은 수고말고!"

[redacted]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 [redacted]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밴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허끝으로 씩 훑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뀌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해 쌓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현대 소설 [18~21] 「나룻배 이야기」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③ 모량댁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⑤ 갑분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이매진』 4호 4주차 DAY 2 [1~4]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칠이'는 '삼바우'에게 '동식이'와 '수만이'가 군대에 간 시기를 물어보았다.
② '두칠이'는 동일한 소대에서 함께 훈련했음에도 '용팔이'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③ '삼바우'는 '두칠이'를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그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④ '두 사람'은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떠난 '삼바우'에게 총을 겨누며 배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⑤ '삼바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본 후에야 그들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지 적중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①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②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illegible]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③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무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④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뀌'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⑤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선지 적중

『이매진』 4호 4주차 DAY 2 [1~4]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룻배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나룻배'가 징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때 뱃사공인 주인공은 전쟁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떠올리며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는 상황을 방해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희생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키고자 하는 민중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 줌으로써 전쟁의 폐해와 이에 따른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① 삼바우가 눈이 '한 개 남은' 상대의 모습에 '기가 막힐 사실'[illegible]것은, 전쟁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상대에 [illegible]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② 삼바우가 '벌써 몇이나 데려갔'냐는 생각을 한 후 '어금니'를 무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징집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것에 그쳤음을 깨닫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③ 삼바우가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부리나케 떠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삼바우가 '통쾌하'다고 느끼면서도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 행사를 방해한 뒤 두려움을 느끼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⑤ 삼바우가 '나룻배'를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징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문학: 갈래 복합 [22~27] 「그 나무」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한 해의 꽃잎을 ㉠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이매진』 2호 3주차 DAY 1 [1~3]

(가)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redacted] 저 난만한 봄길 어디,
[redacted]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작품 적중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이매진』 2호 3주차 DAY 1 [1~3]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정적 진술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④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대조적인 상황에 놓인 자연물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7] 「그 나무」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③ (가)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이매진』 2호 3주차 DAY 1 [1~3]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자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간의 삶에 관한 통찰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개화가 느린 나무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동질감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내비친다. 한편 (나)의 화자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 서로 교감하는 나무의 모습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시련과 고통을 연대와 공존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① (가)에서 '벙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기'리는 것은 나무에도 결핍이 있음을 알고 동질감을 느껴 나무 주위를 떠나지 못하는 화자의 행동을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가난한 소지'가 '지펴'지길 바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목표 없이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③ (나)에서 '쓰러지'면서 '돌아'온 '나'가 '나무의 향기'를 맡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화자가 공존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나)에서 '연초록빛 소름'을 보고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두 자연물이 생사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모습을 목도한 데 따른 화자의 감동을 보여 주는군.
⑤ (가)에서 '저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실을 맺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나)에서 사람이 '아카시아'를 '반아 낸' 나무처럼 될 수 있느냐는 것은 인간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2~34] 「만전춘별사」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A]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B]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C]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가)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러 오느냐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작품 적중

문학: 고전 시가 [32~34] 「만전춘별사」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군.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띄워 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군.

③ (다)에서 '참넝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삼[illegible]'로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illegible] 상태를 강조한 것이군.

④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군.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칡'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 것이군.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임과 이별한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진솔하게 그려 내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거나, 이별의 원인이 임에게 있음을 들며 임을 향한 원망을 토로한다. 임과 맺은 약속이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각각의 화자에게 임을 그리워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① (가)에서 '정 둔 오늘 밤'이 '더디 새'기를 바란다는 것은, 임과 함께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데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겠군.

② (가)에서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는 것은, 임이 자신을 버려둔 채 다른 여인을 찾아간 데 따른 화자의 [illegible]낸 것이겠군.

③ (나)에서 '일촌간장 썩은 물'은 '눈물'이 되어 솟아난다는 것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겠군.

④ (가)에서 '경경 고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나)에서 '독수공방 홀로 앉'아 있는 것은, 임과 이별하여 홀로 남겨진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⑤ (가)에서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는 것과 (나)에서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겠다는 것은, 영원히 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굳은 결심을 나타낸 것이겠군.

『이매진』 1호 4주차 DAY 5 [1~3]

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서창' 너머 [illegible]짝 핀 모습을 통해 화자의 고독감을 심화하고 있다.

② ㉠은 '시름'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대비되고 있다.

③ ㉡은 '끊어질 줄' 몰랐던 임과 화자를 다시 맺어 줌으로써 전능한 힘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은 '귀신'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⑤ ㉠은 '소춘풍'하고, ㉡은 '시샘'한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적중

언어: [35~36] 「음운 + 단어 - 변이음과 이형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이[오시]', '옷+도[옫또]', '옷+만[온만]'처럼 '옷'의 소리가 [옷], [옫],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예컨대 '빗다'의 '빗-'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빋], 비음이 결합되면 [빈]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 자음 'ㅂ, ㄷ, ㄱ'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3차 [35~36]

한편 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명사 '밭'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밭], 비음 외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받], 비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반]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경우에는 [밭]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음운 환경뿐만 아니라 형식 형태소라는 형태론적 정보가 포함된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처럼 의미는 같지만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교체형들을 이형태라 하며, 이형태가 나타나는 조건이 음운론적 정보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 음운론적 이형태, 품사나 어휘, 문법 범주와 같이 형태론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 형태론적 이형태라 한다. 이때 각각의 이형태는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내용 적중

언어: [35~36] 「음운 + 단어 - 변이음과 이형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이[오시]', '옷+도[온또]', '옷+만[온만]'처럼 '옷'의 소리가 [옷], [온],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예컨대 '빗다'의 '빗-'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빋], 비음이 결합되면 [빈]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 자음 'ㅂ, ㄷ, ㄱ'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내용 적중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9일차 [35~36]

하나의 형태소는 주위 환경에 따라 음가나 형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명사 '꽃'은 조사 '이'와 '도'가 결합할 때 각각 '꽃이[꼬치]'와 '꽃도[꼳또]'가 되어 '꽃'과 '꼳'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격 조사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가'로 나타나며, 동사 '묻다[問]'의 어간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묻-'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물-'로 나타난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의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교체라 하고,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각각의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언어: [37] 「문장-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표현」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견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1차 38번

3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동작상은 사건을 구성하는 동작의 시간적 양상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과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진행상으로 나눌 수 있다. 동작상은 주로 ㉢보조 용언 구성에 의해 실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보조 용언 구성이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한편 동작상은 ㉤연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① ㉠, ㉢: 새해를 맞이하여 헌 옷들을 다 버려 버렸다.
② ㉠, ㉤: 동생은 밥을 먹고 바로 자기 방에 들어갔다.
③ ㉡, ㉤: 어머니는 쌀을 씻어서 솥에 밥을 안치셨다.
④ ㉡, ㉥: 학생들은 지금 자기 자리에서 책을 읽는다.
⑤ ㉢, ㉣: 그녀는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

선지 적중

언어: [37] 「문장-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표현」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견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3차 36번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누나는 일찍 집에 들어왔지만 형은 아직 안 왔다.
ⓑ 많이 걸어서 발이 아픈 데다가 짐도 많아서 힘들다.
ⓒ 엄마가 "할머니께서 전화하라셨어."라고 말씀하셨다.
ⓓ 지금 가는 공원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공원이다.
ⓔ 그저께는 날씨가 궂었지만 어제는 맑았다고 하였다.

① ⓐ의 보조사 '는'과 '은'은 선행 체언 끝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의 연결 어미 '-어서'와 '-아서'는 선행 어간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에 해당한다.
③ ⓒ의 주격 조사 '가'와 '께서'는 선행 체언의 높임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ㄴ'은 선행 어간의 품사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에 해당한다.
⑤ ⓔ의 선어말 어미 '-었-'과 '-았-'이 ㉠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였-'은 특정 어휘 뒤에서만 나타나므로 ㉡에 해당한다.

선지 적중

언어: [37] 「문장-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표현」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선지 적중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3일차 36번

36. <보기>의 [자료]에서 ㉠, ㉡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연결 어미 중에는 한 가지 연결 어미가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로 모두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료]는 연결 어미 '-고', '-(으)며', '-는데', '-자'가 쓰인 문장이다.

[자료]

ⓐ ㉠: 어제는 치킨을 먹고 오늘은 피자를 먹었다.
ㅤ ㉡: 형은 내게 눈짓을 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 ㉠: 동생은 아까 노래를 들으며 간식을 먹었다.
ㅤ ㉡: 그 집 남편은 친절하며 부인은 인정이 많다.
ⓒ ㉠: 우리는 대구는 가 봤는데 부산은 못 가 봤다.
ㅤ ㉡: 오랜만에 봤는데 저기에서 차라도 마십시다.
ⓓ ㉠: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ㅤ ㉡: 이번 일은 회사의 일이자 저희의 일입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선지 적중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2일차 37번

37. <보기>를 통해 관형사와 부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관형사가 쓰인 예
ⓐ 오랜 가뭄 끝에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 저 여러 새 건물들은 우리 회사가 짓고 있다.
부사가 쓰인 예
ⓒ 나는 빠르진 않지만 아주 오래 달릴 수 있다.
ⓓ 너는 요즘 잠을 그리 잘 못 자서 어떡하니?

① ⓐ의 관형사 '오랜'과 ⓒ의 부사 '오래'는 각각 다른 품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② ⓐ의 관형사 '오랜'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의 부사 '오래'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군.
③ ⓑ의 관형사 '여러'와 ⓒ의 부사 '아주'는 각각 관형사 '새'와 부사 '오래'를 수식하고 있군.
④ ⓑ의 관형사 '새'와 ⓓ의 부사 '잘'은 모두 수식하는 대상의 [illegible]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⑤ ⓐ [illegible] 여러 개의 관형사와 부사가 연달아 쓰일 경우 일정한 순서에 따라 쓰이며 순서를 바꾸면 비문이 되는군.

선지 적중

언어: [38] 「국어사-중세 국어의 의문문」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자료>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와 보조사가 각각 달리 나타났다. '누', '엇던' 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뇨'가,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반면,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한편, 종결 어미 '-ㄴ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

㉠ [중세 국어] 네 스승이 누고
[현대 국어] 네 스승이 누구인가?
㉡ [중세 국어] 阿難이 마리 외디 아니ᄒᆞ녀
[현대 국어] 아난의 말이 그르지 아니하느냐?
㉢ [중세 국어] 그듸 엇던 사ᄅᆞᄆᆞᆫ다
[현대 국어] 그대 어떤 사람이냐?

① ㉠: 보조사 '고'가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② ㉠: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③ ㉡: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④ ㉢: 종결 어미 '-ㄴ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⑤ ㉢: 종결 어미 '-ㄴ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1차 39번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15세기 국어의 의문법 체계는 현대 국어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15세기 국어에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형 종결 어미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고, 현대 국어의 해라체에 해당하는 ᄒᆞ라체의 경우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종결 어미가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또 현대 국어에서는 체언이 서술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되어야 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체언에 의문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바로 서술어로 쓰여 의문문이 되기도 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료]의 ⓐ~ⓒ에 들어갈 적절한 형태를 써넣어 보자.

[표]

ᄒᆞ라체 종결 어미	1·3인칭 판정 의문문	-녀
	1·3인칭 설명 의문문	-뇨
	2인칭 판정·설명 의문문	-ㄴ다
의문 보조사	판정 의문문	가
	설명 의문문	고

[자료]

○ 이 일후미 (ⓐ)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가?]
○ 내 아래 法輪을 (ⓑ) [내가 전에 법륜을 전했느냐?]
○ 네 벋들히 이제 어듸 (ⓒ) [네 벗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	ⓑ	ⓒ
①	ᄆᆞᄉᆞ뇨	傳ᄒᆞ녀	잇ᄂᆞᆫ다
②	ᄆᆞᄉᆞ고	傳ᄒᆞ녀	잇ᄂᆞᆫ다
③	ᄆᆞᄉᆞ고	傳ᄒᆞ뇨	잇ᄂᆞ뇨
④	ᄆᆞᄉᆞ뇨	傳ᄒᆞ뇨	잇ᄂᆞᆫ다
⑤	ᄆᆞᄉᆞ고	傳ᄒᆞ녀	잇ᄂᆞ뇨

내용 적중

선지 적중

언어: [38] 「국어사-중세 국어의 의문문」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자료>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와 보조사가 각각 달리 나타났다. '누', '엇던' 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뇨'가,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반면,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한편, 종결 어미 '-ㄴ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

㉠ [중세 국어] 네 스승이 누고
[현대 국어] 네 스승이 누구인가?
㉡ [중세 국어] 阿難이 마리 외디 아니ᄒᆞ녀
[현대 국어] 아난의 말이 그르지 아니하느냐?
㉢ [중세 국어] 그듸 엇던 사ᄅᆞᄆᆞᆫ다
[현대 국어] 그대 어떤 사람이냐?

① ㉠: 보조사 '고'가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② ㉠: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③ ㉡: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④ ㉢: 종결 어미 '-ㄴ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⑤ ㉢: 종결 어미 '-ㄴ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27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2일차 39번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현대 국어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국어와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 [자료]를 통해 의문문의 실현 양상을 탐구해 보자.

[자료]

ⓐ ᄆᆞᄉᆞ므라 오시니잇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 오래 住ᄒᆞ야 겨시니잇가 [오래 머물러 계셨습니까?]
ⓒ 大施主의 功德이 하녀 [대시주의 공덕이 많은가?]
ⓓ 客은 므슴 經을 외오ᄂᆞ뇨 [손님은 무슨 경을 외우느냐?]
ⓔ 네 므스글 보ᄂᆞᆫ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 하ᄂᆞᆯ로셔 나신가 식브거마ᄅᆞᆫ [하늘에서 나신가 싶건마는]
ⓖ 求ᄒᆞᄂᆞᆫ 거슨 므스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와 ⓑ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의문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 종결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군.
② ⓐ와 ⓓ를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종결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군.
③ ⓒ와 ⓕ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결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군.
④ ⓓ와 ⓒ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주체의 인칭에 따라 종결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군.
⑤ ⓓ와 ⓖ를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어에 용언 대신 체언이 오면 의문형 종결 어미 대신 의문 보조사가 나타났군.

내용 적중

선지 적중